



# “내가 겪은 학교 성폭력 그냥 둘 수 없다”

2018년 스쿨미투 이후 학교성폭력 피해를 적극적으로 증언해주실 분을 모집합니다

참여방법 | 상단 QR코드 또는 [bit.ly/스쿨미투증언](https://bit.ly/스쿨미투증언)

#스쿨미투 끝나지 않았습니다.

2018년 고발된 학교 성폭력 피해에 대해 경찰 진술 등 적극적으로 증언을 해주실 분을 찾습니다.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가 미흡했던 교육청과 학교들에 감사청구를 요구하고, 아동학대와 정서학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. 저희가 닿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남겨주세요. 증언해주시는 분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지킵니다.

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교사 성폭력 고발이 일어났던 학교는 94곳이었으며 가해교사는 188명이었습니다. 성희롱과 성차별 언어 폭력이 스쿨미투 고발의 60%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했으나,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발된 151명 중 63%는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아직도 교단에 남아 있습니다.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목격한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.

[act@politicalmamas.kr](mailto:act@politicalmamas.kr)

010-2540-0425

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, 402 정치하는엄마들



정치하는엄마들